

우즈베크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된소리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이지원

국립세계언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 목차

초록	
1. 서론	
2. 발음 교육의 이론적 고찰	2.1 제2언어 발음 습득 이론
	2.2 발음 지도의 교육적 관점
3. 이론적 배경	3.1 된소리의 정의 및 음성학적 특징
	3.2 우즈베크어 자음 체계와 비교
4. 우즈베크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	
5. 효과적인 된소리 교육 방안	5.1 음성 인식 및 구별 훈련
	5.2 시청각 자료 활용
	5.3 모국어 간섭 최소화 전략
	5.4 비교 훈련하기
	5.5 감각적으로 차이를 느껴보기
	5.6 호흡과 힘 조절 훈련
	5.7 한국어 원어민과의 반복 연습

	5.8 앱 및 도구 활용
6. 결론 및 제언	
7.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된소리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나라의 교류는 비교적 최근에 본격화되었지만 그 뿌리는 역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1937년 고려인의 이주로부터 연결되기 시작했고, 1992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정상 간 활발한 왕래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대기업 투자 및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고려인 사회 중심으로 한 교류가 활발했지만 최근 한류로 인한 한글의 인기로 세종학당이 세워지고, 노동자, 유학생 증가 및 인력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교류의 확대로 인해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들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약 87,600명으로 한국 내 외국인 인구 중 5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서 된소리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어는 대표적인 음소 문자이다. 따라서 한 음소는 한 글자와 대응하기 때문에 뜻을 몰라도 읽기에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려 하는 학습자에게는 정확하게 한국어를 발음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것이다.

먼저,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 오류 원인에 따라 유효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음성학적 특징을 알아보고,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자음 체계를 제시하여 비교하고 효과적으로 된소리를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1. 서론

한국어 학습자들 중 상당수는 된소리(경음)의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우즈베크어에는 된소리에 해당하는 음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발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우즈베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어의 된소리(ㄱ, ㄷ, ㅃ, ㅆ, ㅉ)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언어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즈베크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된소리 교육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발음 교육의 이론적 고찰

2-1. 제2언어 발음 습득 이론

2-1-1. 음성 전이 이론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Lado, 1957)

•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간 차이가 클수록 발음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제1 언어와 제2언어 간의 차이가 발음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대조 분석 가설의 기초 자료이다. 발음 교육에서 학습자의 제1언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예: 우즈베크어에는 된소리(경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의 ‘ㄱ, ㅃ, ㅉ’ 등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2-1-2. 지각 기반 이론 (Speech Learning Model, Flege, 1995)

• 학습자는 제2언어의 소리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모국어 소리에 ‘대입(matching)’하려고 한다. 모국어의 기존 음소와 유사하면, 학습자는 그것을 새로운 소리로 인식하지 않는다.

• 새로운 소리가 기존 모국어와 유사하다고 인식되면 정확한 지각·발음이 어려워진다.

된소리를 격음 또는 평음으로 인식할 가능성 있다.

2-2. 발음 지도의 교육적 관점

2-2-1. 인지주의적 접근

•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소리를 분석하고, 규칙을 인식하며, 발음을 논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음 규칙과 음운 체계를 ‘이해’한 후 연습해야 더 효과적이다.

• 된소리는 조음 위치뿐 아니라 성대 진동 여부, 강세, 길이 등의 요소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2-2-2. 의사소통 중심 접근 (Communicative Pronunciation Teaching)

• 발음을 단순히 정확히 하는 것보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집중하도록 한다.

• 의사소통 중심 접근 방법을 잘 이용한 경우 학습자의 실제 발화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을 의사소통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으며, 실수에 덜 민감하게 되어 유창성이 향상 되는 등 정서적 부담이 완화되며, 다양한 억양, 리듬 요소를 실제 대화 속에서 체득할 수 있게 된다.

된소리를 잘못 발음해도 의미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학습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3. 된소리 교육의 이론적 배경

3.1 된소리의 정의 및 음성학적 특징

3.1.1 된소리는 한국어의 경음으로, 기식이 없고 성대 긴장이 동반되는 자음이다. 대표적인 예로 ㄱ, ㄷ, ㅂ, ㅅ, ㅈ이 있으며,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진다

예: 달-딸, 발-빨.

3.1.2 한국어 된소리는 긴장된 발음이며, 성대의 떨림 없이 강하게 발음된다. 우즈베크어에는 된소리에 해당하는 강한 무성음이 없으므로,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ㄱ (기역): 약하게 → "가"

ㄱ (쌍기역): 강하게 → "까"

3.2 우즈베크어 자음 체계와 비교

우즈베크어는 터키계 언어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은 존재하나 한국어의 된소리(경음)와 같은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 /ㄷ/, /ㅂ/와 같은 소리는 낫설며, 예사소리(평음)나 격음으로 잘못 대체되기 쉽다.

4. 우즈베크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

- 된소리를 평음으로 대체: 예: 빨래 → [발래]
- 된소리를 격음으로 대체: 예: 까치 → [카치]
- 의미 혼동: 예: ‘딸’과 ‘달’, ‘쌀’과 ‘살’ 구분 실패

오류의 원인은 모국어 간섭, 음성 인식 부족, 그리고 발음 훈련의 부재로 분석된다.

5. 효과적인 된소리 교육 방안

5.1 음성 인식 및 구별 훈련

- 짝 비교(minimal pairs)를 활용한 듣기 훈련을 한다.

예: 달/딸, 발/빨, 살/쌀

- 교사는 음성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반복 청취를 통해 학습자가 차이를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5.2 시청각 자료 활용

- 성대 진동, 발음 기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사용한다.
- 성대 긴장 시 나타나는 목 떨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손으로 목을 짚고 연습하도록 한다.

5.3 모국어 간섭 최소화 전략

- 우즈베크어 자음 중 가장 유사한 소리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지도한다.
 - 격음 → 평음 → 된소리 순서로 접근하도록 돕는다.
- 발음보다는 청각적 인식을 우선 강화한 뒤, 모방 발음을 유도한다.

5.4 비교 훈련하기

- 같은 위치의 평음-된소리 쌍을 비교하며 반복 훈련한다 :
예) 가 / 까, 다 / 따, 마 / 빠, 사 / 썩, 자 / 쯤
- 반복해서 듣고 따라 하기 : 예) "가-까-가-까", "바-빠-바-빠"
음성 파일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5.5 감각적으로 차이를 느껴보기

- 손을 목에 대고 발음할 때, 된소리는 성대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음을 확인시킨다.
- ‘가’와 ‘까’를 발음하면서 진동 차이를 직접 느껴보게 한다.

5.6 호흡과 힘 조절 훈련

- 된소리는 호흡을 조여서 짧고 강하게 내뿜는 소리이다.
- 입술, 혀, 성대를 살짝 긴장시키는 연습 필요하다.

5.7 한국어 원어민과의 반복 연습

-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는 **쉐도잉(Shadowing)** 훈련을 시킨다.
- 짧은 단어 → 문장 → 자연스러운 대화로 확장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5.8 앱 및 도구 활용

- 다음과 같은 앱이나 도구로 발음을 비교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
- Praat(프라트) : 음성 파형, 스펙트로그램, 포먼트 분석 등 정밀한 음성 비교가 가능하며, 된소리나 예사소리 등 미세한 발음 차이를 분석한다. 사용법이 다소 어렵고 학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웹사이트 : <https://www.fon.hum.uva.nl/praat/>)

- Google Speech Recognition / Google 번역 : 발음을 음성 인식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으며 학습자의 발음이 표준 한국어로 인식되는지 확인해준다.
- Naver 파파고 음성 기능 : 한국어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해준다. 학습자 발음의 정확성을 확인해준다.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인식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 Forvo : 전 세계 원어민 발음 샘플을 제공한다.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모방 훈련을 할 수 있다.(<https://forvo.com/>)

훈련1. 예시 단어 모음

평음	된소리	단어 예시	
가	까	가방	까치
다	따	다리	따뜻하다
바	빠	바지	빠르다
사	싸	사과	싸다
자	짜	자다	짜증

훈련2. 발음 연습용 표

한국어 자음	된소리	우즈베크식 유사 발음	예시 단어
ㄱ(g/k)	ㄱ	Katta “k”	까치, 깨끗
ㄷ(d/t)	ㄷ	Qat’iy “t”	따뜻, 땅
ㅂ(b/p)	ㅂ	Pishiq “p”	빨리, 뽀뽀
ㅅ(s)	ㅅ	Qattiq “s”	싸움, 씻다
ㅈ(j)	ㅈ	Kuchli “j”	짜다, 쪽

6. 결론 및 제언

된소리는 한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발음 요소이다. 발음에 따라 쓰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즈베크어 화자에게는 특히 어려운 발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음향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반복 훈련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청각 구별력 강화, 영상 매체 활용, 모국어와의 차이 인식 등을 활용한 체계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발음 교육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훈련 콘텐츠 즉, 보다 많은 음성 자료 개발 및 현지 교수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각 훈련 중심의 발음 수업을 설계하여 된소리-평음-격음의 차이를 청각적으로 구별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의사소통 중심 활동을 병행함으로 실용 상황을 중심으로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다. 자기 녹음 및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고 모범 발음과 비교할 수 있는 자기 점검 도구를 제공하는 것 또한 효과적이다. 우즈베크어 학습자 전용 발음 교육 교재 및 디지털 자료가 개발 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숙련도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검증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음성 전이 이론(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2. Flege, J. E. (1995). Second language speech learning: Theory, findings, and problems. In W. Strange (Ed.), Speech perception and linguistic experience: Issues in cross-language research (pp. 233–277). York Press. : 지각 기반 이론(Speech Learning Model : SLM)
3. Celce-Murcia, M., Brinton, D. M., & Goodwin, J. M. (2010). Teaching pronunciation: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인지주의 발음 교육 접근
4. Morley, J. (1991). The pronunciation component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 Quarterly, 25(1), 51–74. : 의사소통 중심 발음 지도(Communicative pronunciation Teaching)
5. 박혜진. 2011. 우즈베크 학습자의 한국어 경음 발음 실태 및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29(1), 101-130.
6. 김민정 2015. 『한국어 음운 교육론』. 서울: 한글출판사.
7. 장명주. 2019. “중양아시아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 박정아. 2022. “경음 교육의 실제와 과제.” 『한국어교육연구』, 34(2), 45-68.
9. 이철동. 2011.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된소리 발음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